



불 밝힌 서남권 새 랜드마크 4일 밤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정식개통해 어두운 바다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2010년 공사비 5814억원을 투입, 9년여만에 완공을 하게된 천사대교는 교량 길이만 7.22km, 주탑 최대높이가 195m에 달하는 국내 4번째 규모의 해상 장대교량이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1대 1...경색정국 내년 총선까지 계속

4·3 보선 진보·보수 무승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진영의 무승부로 막이 내렸다. 경남 창원성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동영·고성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각각 승리, 서로 1승씩 나누어 가진 것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무승부지만, 내용 상으로는 여권의 판정패라는 말까지 나온다. '진보정치 1번지' 창원성산에서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가 가까스로 승리하고,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친 동영·고성에서 한국당 후보에 큰 표차로 무릎을 꿇은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플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싸늘한 경남 민심을 확인한 만큼 내년 총선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반면, 한국당은 동영·고성 승리로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의 악몽을 떨쳐내고 부산·경

남(PK) 민심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의 부활을 알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번 보선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만큼 여야의 시선은 이제 내년 4월 총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보선 성적표를 토대로 여야가 당의 명운이 걸린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총선 정국의 조기 접합이 예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색 정국 국면에서 치러진 보선에서 승부가 나지 않아 선거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나아가 인사청문 정국에서 펼쳐진 여야의 극한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어느 쪽

도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가운데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한층 팽팽해지고, 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론을 놓고 공방은 더욱 가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선에서의 무승부로 인한 정국 교착 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의당이 '진보정치 성지'로 불리는 창원성산을 사수하면서 민주당평화당과 원내 교섭단체를 다시 꾸리는 사안도 변수다. 우여곡절 끝에 진보성향 정당인 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꾸리면 민주당과의 '범여권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여

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평화당과 정의당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는다.

보선 이후 여권 내 역학 관계는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상황이라 민주당이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키우며 당청관계 변화를 이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인사청문정국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와 관련,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민주당이 당청 관계의 변화에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보선 결과는 무승부지만 내면적으로는 여당인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이 크다"며 "이번 보궐 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는 쓴 약이 될 것이며 한국당에는 희망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서 "녹색이 않은 선거 환경이었지만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창원 시민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종과 경제 실패,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회초리"라며 "한국당이 얻은 승리는 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못해서 얻은 반사이익"이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신안 압해도~암태도 천사대교 개통 총연장 10.8km...4개면 7개 섬 내륙 연결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4일 개통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날 오전 천사대교 인근 송공항 매표지에서 이날 오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갖고 오후 3시부터 천사대교 차량 통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엔 총리는 축사에서 "섬은 보석처럼 귀중한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전남의 보물이다"며 "전남 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신안의 매력에 세상에 더 잘 알려지고 신안이 더 신안답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는 섬을 훨씬 더 정성스럽게 가꾸고, 섬 주민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연장 10.8km인 천사대교는 목표와 연륙교로 이어진 신안 압해도와 섬으로 떨어져 있던 암태도를 잇는 왕복 2차로 연륙교다. 교량 길이만 7.22km에 주탑 최대높이가 195m에 달하는 국내 4번째 규모의 해상 장대교량으로, 사장교와 현수교 공법을 함께 사용한 국내 유일 교량이다.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5814억원을 투입했다.

암태도와 자은도 등 인근 주요 섬들은 연도교로 연결됐지만 목포와 연륙교로 이어진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교량이 없어 그동안 주민·관광객들의 육지 왕래가 어려웠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육지가 된 섬은 암태, 자은, 안좌, 팔금, 자라도, 추포도, 박지도, 반월도 등 4개면 7개 섬이다. 육지로 나오려면 1시간 이상 배를 타야 하거나 보통 2~3시간 걸려 목포로 나오는 이국 주민들의 고통도 사라지게 됐다.

천사대교 명칭은 지역주민 공모를 통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했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 전남도는 관광산업 기반이 약한 서남권 랜드마크로 천사대교를 활용하기로 하고 다양한 연계 관광산업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 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민주 "개혁 요구 실현 할 것" 한국 "문 정부 폭주 막을 것"...4·3보선 엇갈린 반응

4일 여야는 4·3 보궐선거 결과를 경계하며 받아들인다는 듯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를 확인했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폭주'를 멈춰달라는 민심이 나타났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경제 파탄에 대한 국민 지탄을 확인했다고, 민주당은 정부여당 잘못으로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창원 성산에서 신승한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개혁입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심을 잘 살피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치·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의당과 열심히 노력해 경제 활성화와 개혁 요구를

실현할 것"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과를 경계하며 받아들인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권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 파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면서 "녹색이 않은 선거 환경이었지만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창원 시민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종과 경제 실패,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회초리"라며 "한국당이 얻은 승리는 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못해서 얻은 반사이익"이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보선 참패, 바른미래 비대위 체제로 가나

4·3 보궐선거 참패의 후폭풍이 바른미래당을 덮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선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노렸지만, 민주당(3.79%)에도 밀린 3.57%로 4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당은 선거를 총지휘한 손학규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

당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바른미래당 위원장 모임'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선거 참패의 원인이 선거제 개혁안의 무리한 추진이라며 손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